

해사대학 졸업생의 진출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1)

박진수*

A Survey on the fields of engagement in business of
the graduates from the College of Maritime Sciences, KMU

Park, Jin-Soo

〈목 차〉

- | | |
|-------------------|----------------|
| I. 서론 | 3. 조사결과 및 분석 |
| 1. 연구의 배경 | 4. 분석개요 |
| 2. 연구의 목적 | 5. 부전공 교과과정 |
| II. 본론 | III. 결론 |
| 1. 연구의 방법과 범위의 설정 | 1. 결론 |
| 2. 진출분야에 대한 분류 | 2. 향후 연구과제와 방안 |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fields of engagement in business of the graduates from the College of Maritime Sciences, Korea Maritime University, and to guide the students mapping out their future. This study analyzed the graduates for 20 years (from 21st to 39th), and the present jobs of 2,108 graduates were available. The fields of engagement in business of the graduates from the College are so diversified, so it was not easy to classify the fields.

The majority(75%) of the graduates are engaged in maritime fields including shipping company and the merchant marine officers. Nevertheless, the number of graduates who is working on board is not surveyed thoroughly, it indicates that the graduates tend to divert to shore job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College should take a step to adjust the present curricula considering their requirements form the fields of engagement in business of the graduates.

1) 이 연구는 해사산업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해사수송과학부 졸업 논문(김현곤, 박준혁, 강성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부교수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경제 성장과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사회에서는 고학력의 인적 자원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학 입시의 과열 경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점차 핵 가족화와 가족 계획 및 의식 구조의 변화 때문에 자녀의 수가 줄어들며 따라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과 대학의 모집 인원이 점차 균형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대학의 모집 인원이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 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에 따라, 각 대학들은 대학 진학 학생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 해사대학은 국립대학이라는 이점과 상대적으로 낮은 등록금, 관비의 혜택 및 병역 특례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으나, 생활 수준의 향상과 육상 직업의 다양화 및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해상 임금 등과 같은 요인 때문에 젊은이들의 승선 기피 현상과 아울러 육상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해사대학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학생들은 승선 후 진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어, 재학중 미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조사·연구는 재학생들의 승선후 진로 선택과 이에 대한 사전 준비에 도움을 주고, 또한 해사대학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해사대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 대부분의 졸업생이 졸업 후 승선을 한다는 것이다. 승선이라는 직업의 이중성과 육상 임금에 비해 별 차이가 없는 해상 임금 때문에 재학생들조차도 장기 승선을 꺼려하고 있다. 또한 승선 후의 진로에 대해서도 막연히 일단 승선 후라는 점에서, 재학 중에 준비를 하지 않고 도외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사대학 졸업생들의 승선 후 진출한 직업분야에 대해 조사하고, 그런 분야들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살펴봄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내용들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졸업생들의 승선 후 진로에 필요한 지식들을 대학 재학시절에 습득하게 하여, 승선뿐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모하고자 한다.

해사대학의 졸업에 필요한 졸업 이수학점은 160학점이다. 일반 대학보다 20학점이 많은 이유는 승선에 필요한 전공 과목이외에도 승선 후의 진로에 대비한 전공 분야의 과목과 그 밖의 교양과목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승선 후 진출분야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이런 전공 교과과정에 대해 호응을 얻기 어려울 뿐더러, 재학 중에 이에 대한 대비도 소홀해지기 마련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승선 후 진출분야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재학생들에게는 현 교과과정에 대한 지식습득의 필요성을 자각시키고, 좀더 효율적인 교과과정을 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II. 본 문

1. 조사 방법과 범위의 설정

조사 대상의 범위는 졸업 후 10여년이 지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반을 잡았다고 여겨지는 39기(1987년 졸업)부터, 국내·외 해운의 부흥기와 발전기에 졸업하여 승선을 하였고, 국가기간 산업의 고급인력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기수들로 여겨지는 21기(1969년 졸업)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 기수들의 최근 연락 자료들을 얻기 위해 총동창회를 통하여 조사 대상 기수들의 연락처를 받아, 각 동기회장과 총무들에게 전화 연락으로 약속을 잡고 방문하여 동기회 명부를 구하기도 하였고, 총동창회에서 우편과 팩스로 동기회 명부를 보내주기도 하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기수의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때마침 1998년판 총동창회 명부가 출판되기로 한 해이어서 자료들을 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21기~39기까지의 졸업생은 항해학과 2302명, 기관학과 2334명으로 총 4636명이었으나, 동기회 명부에 이름이 있지만 연락이 두절되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거나, 해외로 이민을 간 졸업생 그리고 작고한 졸업생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총 조사대상 인원은 항해학과 1059명, 기관학과 1049명으로 총 2108명이었다.

2. 진출분야에 대한 분류

동기회 명부를 통해 얻은 조사대상 졸업생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 및 직종은 매우 다양하여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어, 다음 <표-1>과 같은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진출분야에 대한 분류는 일관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크게 승선, 육상 해운직, 해운계열, 공공기관, 비 해운 계열의 다섯 개로 크게 분류하였다. 승선은 다시 상선에 승선하고 있거나 현재 도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으로 분류하였고, 육상 해운직은 주로 선박을 이용해 해상운송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종사하는 졸업생으로 외항, 내항, 해외취업선 업체로 나누었다.

해운계열로는 해운에 관련된 업체와 해운 관련 단체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공공기관은 교육 연구계통과 공무원 및 선급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하였다. 비 해운계열은 금융·보험업계 및 해운과 관련이 없는 개인사업으로 분류했다.

뚜렷한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분류한 것은 아니지만, 해사대학 졸업생들이 주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들의 관련성을 찾아 분류한 것이다.

〈표 1〉 졸업생 진출 분야의 분류

분야별 대분류	세부 분류	내 용 설 명
승 선	승 선	현재 해운회사에서 승선 중
	도 선 사	현재 각 항구에서 도선사로 활동
육상 해운직	외항해운업체	외항 해운업체에 근무
	내항해운업체	내항해운업체에 근무
	해외취업선사	해외취업선사에 근무
해 운 계 열	해운부대산업	선박대리점, 예선, 급유, 경비, 선용품, 선식, 해사기술 등의 업계에 종사
	검·사정업계	검정·감정업체나 손해사정업체 등에 근무
	중 공 업	중공업체
	조 선 소	조선업체
	조선기자재 및 선박수리업	무선통신사업, 선박기관기계의 제조나 수리, 항해장비의 제작이나 수리, 선박의 수리업 등에 종사
	해운관련단체	선주협회, 해기사협회 등 해운 관련 단체에 종사
	운송하역회사	BCTOC, PECT, 우암 컨테이너 터미널, 종합운수회사, 항공회사등 운송이나 하역회사에 종사
공 공 기 관	교육연구계통	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 재교육기관, 연구소 등에 근무
	공 무 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해난심판원, 소방서, 세관, 교육청, 세무서, 우체국 등 공무원으로 근무
	선 급	KR, NK, ABS, BV, DnV 등 선급에 종사
비해운 계열	금융보험업계	금융업이나 보험업계에 종사
	개 인 사 업	해운과 관련이 없는 사업체를 자영 또는 근무

3. 조사 결과 및 분석

1) 항해학과 졸업생의 진출 분야

조사 대상 졸업생 2,302명 중 소재가 파악된 1,059명의 현재 근무처 별 현황은 〈표 2〉와 같다. 역시 외항 해운업체에 근무하는 육상직이 가장 두드러지고, 승선중인 인원은 전체의 약 14%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현상은 동기회가 주로 육상에 근무하는 졸업생들로 운영되는 한계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선 중인 인원이 파악되지 않은 기수가 많이 눈에 띄고 있다.

<표 2> 항해학과 졸업생 진출 분야

	승선직		육상 해운직			해운 관련업						비해운업		공공기관			합계	
	승선	도선사	외항해운업체	내항해운업체	해외취업선사	해운부대산업	중공업	조선소	운송하역사업	검사사정업체	해운관련단체	조선기자재업	금융보험업계	개인사업	선급	교육연구기관		공무원
21	3					5			1				1	7	1	1	2	21
22	8	2	4		1	2				1				1		1		20
23		4	6			3			1					3	1			18
24	9	12	7		3	7				1		1		1		2		43
25	12	8	7	1	1	7			3						2	7	2	50
26	13	10	5		2	10			2	2	1			1		3	5	54
27	19	5	8		3	10	2	1	2	2	2		1	5	1	3		64
28	24	4	11		7	1					1	4		9	4			65
29	6	4	12		2	13			3					9		7	4	60
30	12		19	1	3	11		1	3			3		3		3	1	60
31	24		16		3	15	2		3	2	1			3	3	6	4	82
32			38	1	2	4	2	1	1	5	1			3	1	7	3	69
33	2		9		1				3	1		1		4		4	4	29
34			7		1	1			4					1		1		15
35			46	3	3	7			4	2			1	5	3	4	5	83
36	15		10			18			2	1	1		3	6	2	4	5	67
37			43		4	13	2		2	2	1	4	4	10		11	9	105
38			33	1	3	6	8		2	3			1	3		6	16	82
39			37	2	1	3	3		3	2	1	1	4	3	2		10	72
합계	147	49	318	9	40	136	19	3	39	24	9	14	15	77	20	70	70	1059
비율	13.9	4.7	30.0	0.8	3.8	12.8	1.8	0.3	3.7	2.3	0.8	1.3	1.4	7.3	1.9	6.6	6.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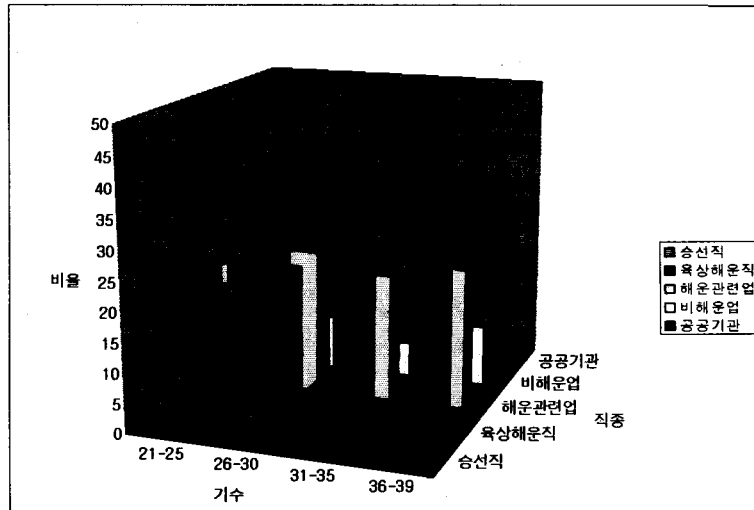
<표 2>를 보면 육상 해운직의 외항해운 업체의 비율이 30%, 승선과 도선사가 18.6%, 해운 관련업의 해운부대산업이 12.8%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교육연구기관이 각각 6.6%이며 운송하역사업이 3.7%, 검·사정업체 2.3%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급, 중공업, 조선소, 조선기자재의 분야에는 학과의 특성 때문인지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개인 사업은 7.3%, 금융보험업계는 1.4%로 나타났다.

<표 3>은 조사 대상을 5개기씩 묶어 이들 그룹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 표이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21~25기의 승선직 비율이 각각 38.16%, 32.01%인데 반하여, 31~35기 및 36~39기의 경우에는 각각 9.31, 4.6로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승선 인원에 대한 조사는 충분치 못한 관계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육상 해운직의 경우 21~25기 및 26~30기의 비율이 각각 19.73%, 24.09%인데 반해 31~35기 및

〈표 3〉 항해학과 졸업생의 진출 분야별 비율 비교

	승선직		육상해운직			해운관련업						비해운업		공공기관		합계		
	승선	도선사	외항해운업체	내항해운업체	해외취업선사	해운부대산업	중공업	조선소	운송하역사업	검사사정업체	해운관련단체	조선기자재업	금융보험업계	개인사업	선급		교육연구기관	공무원
21~25	32	26	24	1	5	24			5	2		1	1	12	4	11	4	152
비율%	21.05	17.11	15.78	0.66	3.29	15.79			3.29	1.32		0.66	0.66	7.89	2.63	7.24	2.63	100
26~30	74	23	55	1	17	45	2	2	10	4	4	7	1	27	5	16	10	303
비율%	24.72	7.59	18.15	0.33	5.61	14.85	0.66	0.66	3.30	1.32	1.32	2.31	0.33	8.91	1.66	5.28	3.30	100
31~35	26		116	4	10	27	4	1	15	10	2	1	1	16	7	22	16	278
비율%	9.31		41.70	1.44	3.60	9.70	1.44	0.40	5.40	3.60	0.72	0.40	0.40	5.73	2.52	7.91	5.73	100
36~39	15		123	3	8	40	13		9	8	3	5	12	22	4	21	40	326
비율%	4.60		37.74	0.92	2.45	12.27	3.99		2.76	2.45	0.92	1.53	3.68	6.75	1.23	6.44	12.27	100
총합계	147	49	318	9	40	136	19	3	39	24	9	14	15	77	20	70	70	1059
총비율	13.88	4.63	30.03	0.85	3.78	12.84	1.79	0.28	3.68	2.27	0.85	1.32	1.42	7.27	1.89	6.61	6.61	100



〈그림 1〉 항해학과 기수대별, 직종비율 도시

36~39기의 비율이 각각 46.74%, 41.11%로 나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육상 해운직의 비율이 높아져 감을 알 수 있다. 해운 관련업중에서 해운 부대산업은 꾸준한 분포 비율을 보여주고, 중공업, 운송 하역사업, 검·사정업계는 점점 증가 추세이다. 비해운 계열의 개인 사업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보험업계 쪽에서는 최근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공공기관 부분에서는 대체로 고른 분포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무원 분야가 최근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은 〈표 3〉을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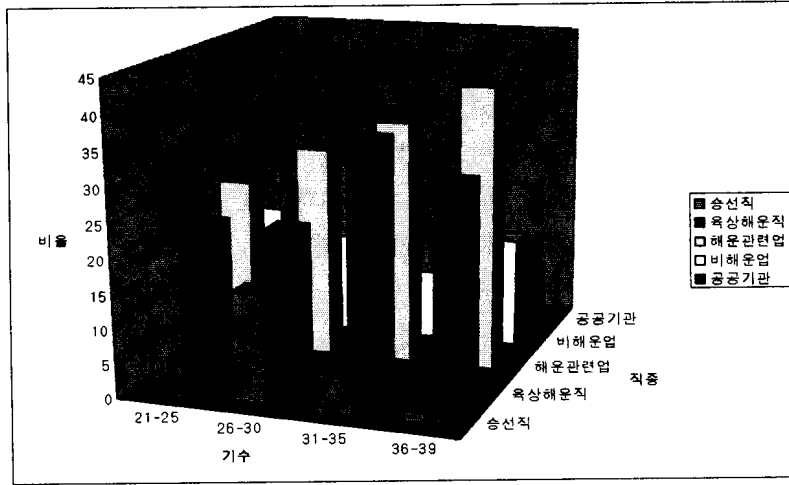
2) 기관학과 졸업생의 진출 분야

〈표 4〉는 기관학과 졸업생의 직종별 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육상 해운직 외항 해운업계의 비율이 24.2%로 가장 두드러지고, 해운 관련업의 조선기자재 분야가 10.3%, 해운부대산업이 9.5%, 승선이 9.4%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해운 관련업의 중공업 분야가 8.8%, 공공기관 중에서 교육기관이 7.8%, 선급이 4.3%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금융보험업계, 운송하역회사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개인사업은 13.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항해학과 졸업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승선중인 인원은 전체의 9.4%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동기회가 주로 육상에 근무하는 졸업생들로 운영되는 한계로 인한 것으로 추측되며,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선 중인 인원이 파악되지 않은 기수가 많이 눈에 띄고 있다.

〈표 4〉 기관학과 졸업생 진출분야

	승선직		육상 해운직			해운 관련업						비해운업		공공기관			합계	
	승선	도선사	외항해운업체	내항해운업체	해외취업선사	해운부대산업	중공업	조선소	운송하역사업	검사정업체	해운관련단체	조선기자재업	금융보험업계	개인사업	선급	교육연구기관		공무원
21	3					3	1					2		12		1		22
22	6		4	2		1			1					2		2		18
23	2		5		2	1						1		3	1			15
24	8		9			5	1					6		2	8		1	40
25	13		8	2	1	4	2		2	5		2		8	1	4	1	52
26	13		8		1	2	2	2	1	2	2	4		7	1	10		55
27	9		14		2	5	3		1	1		3		8		3	4	53
28	12		13	1		6	2	1	2			3	1	4	2	6		53
29	3		7		1	10			1	2	1	3		17	3	8		56
30	7		8		5	6	7	6	2	1	1	3		4	3	5		58
31	17		14		1	12	6	5		1		3		5	5	6		75
32			31	4	5	9	11		1	2		13		11	4	6		97
33	1		6		4	3			1	1		8		4	1	6	1	36
34			6		1	5	1	1	1	1		5	1	3				25
35			40	1	2	1	11	1	1	1	1	9		9	3	11		91
36	5		13	3	3	15		1	1	3			1	10	2	1		58
37			34		2	9	14	1	2					15	1	7	4	111
38			14		3		20	1		1				10	1	4	1	63
39			19		1	3	11							13	2	11	1	71
합계	99		253	12	34	100	92	19	17	21	5	108	5	145	45	81	13	1049
비율	9.4		24.2	1.1	3.2	9.5	8.8	1.8	1.6	2.0	0.5	10.3	0.5	13.8	4.3	7.8	1.2	100



〈그림 2〉 기관학과 기수대별, 직종비교 도시

〈표 5〉 기관학과 졸업생 진출분야 비율 비교

	승선직		육상해운직			해운관련업						비해운업		공공기관			합계	
	승선	도선사	외항해운업체	내항해운업체	해외취업선사	해운부대산업	중공업	조선소	운송하역사업	검사사업업체	해운관련단체	조선기자재업	금융보험업계	개인사업	선금	교육기관		공무원
21~25	32		26	3	3	14	4		3	5		11		27	10	7	2	147
비율%	21.78		17.69	2.04	2.04	9.52	2.72		2.04	3.40		7.48		18.37	6.80	4.76	1.36	100
26~30	44		50	1	9	29	14	9	7	6	4	16	1	40	9	32	4	275
비율%	16.00		18.18	0.36	3.27	10.55	5.10	3.27	2.55	2.18	1.45	5.82	0.36	14.55	3.27	11.64	1.45	100
31~35	18		97	5	13	30	29	7	4	6	1	38	1	32	13	29	1	324
비율%	5.56		29.96	1.54	4.01	9.26	8.95	2.16	1.23	1.86	0.30	11.73	0.30	9.88	4.01	8.95	0.30	100
36~39	5		80	3	9	27	45	3	3	4		43	3	46	13	13	6	303
비율%	1.65		26.40	0.99	2.97	8.92	14.85	0.99	0.99	1.32		14.19	0.99	15.18	4.29	4.29	1.98	100
총합계	99		253	12	34	100	92	17	17	21	5	108	5	145	45	81	13	1049
총비율	9.44		24.12	1.14	3.24	9.53	8.77	1.62	1.62	2.00	0.48	10.30	0.48	13.82	4.29	7.72	1.24	100

〈그림 2〉 및 〈표 5〉는 조사 대상을 5개기씩 묶어 이들 그룹간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한 표 및 그림이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21~25기 및 26~30기 승선의 비율이 각각 21.78%, 16%인데 반해 31~35기 및 36~39기의 경우에는 각각 5.56%와 1.65%로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승선 인원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결과이다.

육상 해운직의 경우 21~25기 및 26~30기의 비율이 각각 21.77%, 21.81%인데 반해 31~35기 및 36~39기의 경우에는 35.51%, 30.36%로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이며, 해운관련업 중에서 해운 분야의 금융·보험업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선금, 교육기관 분야는 변화가 거의 없고 공무원 분야는 최근 상승하고 있는 분야이다.

3) 항해·기관학과 비교·분석

항해학과와 기관학과와 진출 분야를 보면 학과의 특성이 비교적 뚜렷이 나타난다. 이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우선, 승선직에서 항해학과는 도선사를 포함해서 18.5%, 기관학과는 9.4%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기관학과 졸업생의 승선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공업 및 조선소 분야에서는 기관학과가 10.6%로 항해학과 2.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육상해운직에서 외항해운 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은 항해학과 30%, 기관학과 24.2%로 두 학과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또한 개인사업 분야에서도 항해학과는 7.3%인데 반해, 기관학과는 13.8%로 기관학과 졸업생들이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공무원에서는 항해학과가 6.6%로 기관학과 1.2%보다 높게, 선급에서는 기관학과가 4.3%로 항해학과 1.9%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4. 현행 교과 과정

1996학년도를 기준하여 해사수송과학부 및 기관시스템공학부의 각 전공별 교과과정(전공필수)은 다음과 같다.

1) 해사수송과학부

가. 해사경영과학전공

전산통계, 해운경영, 경영과학, 국제무역, 항만관리, 해상보험, 생산·운영관리, 국제물류시스템, 경제성공학, 경영정보시스템, 조직행동론

나. 해사정보공학전공

전산수학, 프로그래밍 언어, 전기전자기초, 컴퓨터구조,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구조, 운영체제, 수로측량 및 항로표지, 정보이론, 컴퓨터네트워크, 해양시설시스템

2) 기관시스템공학부

가. 기관공학전공

냉동공조공학

나. 선박기계공학전공

기계재료응용, 가스터빈, 유체기계, 컴퓨터지원설계, 수치해석, 기관설계, 진동소음공학, 기계공학실습 및 윤강, 유체기계

다. 선박전자기계공학

냉동공조 공학,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력전자공학, 현대제어, 컴퓨터시뮬레이션, 로봇공학, 계측 및 계장, 전기기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실험

라. 선박냉동공학전공

냉동공학 I, II, 공기조화 I, II, 전열공학응용, 냉동자동제어, 냉동공조설비설계, 위생공학

현재의 교과 과정 구성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우리 졸업생들이 많이 진출하는 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들을 조사해 본다면, 각 전공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가르쳐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각 분야별로 요구되는 교과과정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결 론

1. 조사·분석 요약

졸업생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업 분야가 매우 다양하여 이를 분류하는데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를 보면 크게 승선 및 해운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졸업생이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개인 사업은 해운과 전혀 관련없는 직종을 포함했지만, 공무원은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연수원, 해양경찰이 주류였고, 금융 보험 업계 및 검·사정업계 또한 해상손해 보험 등과 같은 조급은 해운과 관련이 있는 직종이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비록 승선인원이 파악되지 않은 기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선 인원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추세는 장기 승선이 아닌 해운 계열을 비롯해 비 해운 계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육상 직종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추측된다. 육상이든 해상이든 간에 해운 관련업체에 가장 많은 졸업생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전공을 살려 진로를 택했다는 바람직한 점도 있지만, 이 외에 우리가 진출 가능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개발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향후 연구 과제와 방안

지금까지 위와 같이 졸업생들의 진출분야를 조사하고 분류하여 그 추세를 알아보았다. 승선직(14%), 외항해운업체(27.1%), 해운 부대 산업(11.2%), 조선기자재 산업(5.8%), 중공업 및 조선소(6.3%), 개인사업(10.5%), 교육기관(7.2%) 등이 비교적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조사된 전체 인원 중 약 75%가 승선 및 해운관련 육상직으로 나타났다.

20대 기수와 30대 기수를 비교하면 점차 승선보다는 육상으로 진출하려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들을 위한 새로운 전공과정의 신설과 교과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과제로는, 이미 우리 졸업생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분야는 물론, 우리가 진출 가능한 분야를 찾아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포함한 전공 과정의 개설과 교육과정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